

무등산 조례안 통과 될까

광주시의회 오늘 본회의 표결 처리 주목

본보 조사 결과... 찬성 7·반대 5·유보 6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무등산 조례'를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성 7, 반대 5, 유보 6명=본보가 '무등산 조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지난 10일 전체 시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찬성, 5명은 반대, 6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

다.<표>

조례안을 발의한 송재선 의원(서구)과 이철원 의원(북구)은 "무등산 보전이라는 핵심적 가치는 증대시키면서 생태·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원장인 김성숙 의원(서구)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됐다"며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김선문 의원(남구)은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며 개발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유재신 의원(광산)은 "의회는 민생 조례에 집중하고, 개발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이 맞다"며 "의회에서 발의할 성격이 아니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

하지만 전체 의원 중 3분의 1인 6명의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꺼렸다. 손재홍 의원(동구)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고 진선기 의원(북구)은 지난 1년간 찬반 갈등을 빚은 안건에 대해 "생각을 깊이 안해 봤다"며 질문을 회피했다.

▷투표 방식 놓고 논란=이처럼 찬성과 반대, 유보 입장이 뒤엉키면서 '투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박원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에게 "찬반 양론이 팽팽한 안건에 대해 표결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무기명 투표' 할 것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도 공정한 의사 표시를 위해 무기명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의원들은 '기명 표결'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자고 맞서고 있다. 의결권은 개인 의사가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표결을 공개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원 '무등산 조례' 찬반 입장

의원명	찬반	이유
송재선	찬성	지문위 거치므로 환경훼손은 기우
김성숙	"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
김성숙	"	상임위 의견 존중해줘야
나중천	"	시민에게 이익
이철원	"	우려한다고 정책 못퍼서는 안된다
조광항	"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됐으면
이명지	"	광주 미래 생각해 필요
김필출	반대	환경보전이 대신인데 부작용 우려
김선문	"	있는 그대로 물려주는게 가장 소중
전우근	"	사회적 합의가 중요
유재신	"	개발 조례는 의회 발의 성격 아니다
이정남	"	시민 마음 열려지지 않다면 시간 필요
양해령	유보	찬반 둘 다 일리 있다
손재홍	"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판단
진선기	"	생각 깊이 안해 봤다
김홍진	"	고민스럽다
조호권	"	소신껏 참여하겠다
강박원	"	의정이 표현하는 것 바람직 않다

특히 이들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명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표결 방법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표결이 공개되지 않으면 향후 시민사회나 시의회 내부에서 '의결별 찬·반 억측'이 나돌고, '밀실 투표'라는 오명이 더해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현장과 시각 ■

F1지원법 이번이 마지노선



홍행기
정치부 차장

"국회가 언제나 열릴지 마냥 기다려다 지쳐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간신히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하루빨리 F1지원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전남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12일,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국회가 정상화되기만을 이겨내 지 제나 기다려 온 전남도 F1(포틀러)국제자동차대회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국회만 열린다면, 1년 3개월 후인 내년 10월 영암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수적인 F1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F1지원법의 극적인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가 좌절한 이후 전남도는 당혹감과 함께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F1지원법은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0일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으나 다른 쟁점안 처리 등으로 회의진행이 자정까지 지연되면서 결국 국회가 자동 산회, 끝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일단 민주당이 등원방향을 밝힘에 따라 F1지원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꼬여왔던 사안인데다 국회차원에서 변수도 적지 않아 일부에선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F1지원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전남도의 F1대회 준비에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F1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인 'F1대회준비기획단'을 'F1대회조직위원회'로 확대·개편해야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F1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조직이어서 아직까지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에선 이달 중순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F1지원법이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남도 전체 인사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결국엔 F1지원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F1지원법이 이제 전남도의 손을 떠나 국회에 넘겨졌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의 각종 현안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여야간 충돌이 이어질 경우, 이번 국회 역시 지난번처럼 F1지원법이 다뤄지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했다. 밤 12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중요한 안건을 남겨둔 채 회의를 중단하고 해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이번 국회에선 그러한 전철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 우루무치 삼엄 경비

중국 무장경찰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시위 사태로 모든 불법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12일 우루무치의 대규모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 쇼핑을 옆에서 장갑차(APC)를 세워둔 채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다. /연합스

올 1기분 재산세 광주시 760억·전남도 703억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1기분 726억원에 비해 34억원(4.7%)이 늘어난 76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부과 규모는 북구가 2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94억원, 남구 87억원 순이었으며, 동구 7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기아자동차로 42억5천만여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금호타이어(주) 31억1천800만여원, 금호타이어(주) 23억7천700만여원, 금호생명보험 21억9천700만여원 순이었다.

주택별 최고 납세자는 동구 금남로 5가 금호아시아문화재단으로, 599만

여원이 부과됐다.

전남도는 올 1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5.1% 증가한 70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36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로써로 158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특채

2008.9.27시행 한빛고시출신 아규출신 중앙선관위 (광주,전남,북) 경쟁률 1064.7:1 수석합격

오전 10:00 ~ 13:00 사 회
오후 14:00 ~ 17:00 행정학

2개월완성 합격맞출강의

한빛고시학원

광주북경로 622 234-0234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메가박스 구.린던역국사거리 ☎1544-0600</p> <p>M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킹콩을 들다 (전제)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4관 킹콩을 들다 (전제)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 9관 거북이 달린다 (15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1588-7941</p> <p>1관 킹콩을 들다 (전제) 2관 아더와미니모이 (전제/더빙)/여고괴담5(15세) 3관 킹콩을 들다 (전제)/오감도 (18세) 4관 오감도 (18세) 5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박물관이살아있다 (전제/트랜스포머)(12세) 10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상무점] 평일 밤 11시 2000원 할인! 중계-합의금! [상무점] 매일 합권 무료증정!</p>	<p>하미 시네마 고려대점 ☎www.hamcinema.co.kr / 1588-9120</p> <p>1관 여고괴담5(15세)/터미네이터(15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제)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제)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킹콩을 들다 (전제) 7관 오감도 (18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10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p> <p>• 500원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메일 실마 • 이동 통신사 &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p> <p>• 해미 수원점 289-5757 • 해미 불광점 282-0925 • 해미 골프점 281-5000 • 해미 당구장</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p> <p>1관 킹콩을 들다 (전제) 2관 오감도 (18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박물관이살아있다(전제) 4관 거북이 달린다(15세)/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 5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저씨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227-1980</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오감도 (18세) 4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5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 6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 무료주차 3시간 (영주,서문소 및 충장로점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80</p>
---	---	--	---	---